

### 광주다움스포츠클럽 양궁 자체대회 성료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2025 광주다움스포츠클럽 양궁 자체대회’가 지난 24일 광주여자대학교 실외 양궁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 광주다움스포츠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대회에는 거리별(10m·15m·20m)과 단체전 경기를 진행, 총 20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오순근 광주다움스포츠클럽 회장은 “앞으로 안전 등을 포함한 광주여대 선수들과 함께 훈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이번 대회가 시민이 함께하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알리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di@

### 농협광주본부, 제주시농협과 ‘빛찬들 햅쌀’ 홍보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최근 이틀간 제주 지역을 방문, 제주시농협과 협약을 맺고 광주 대표 쌀 브랜드 ‘빛찬들 햅쌀’ 홍보 및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이날 협약으로 광주 주유 하나마트에는 제주 대표 농산물인 감귤 등 제철 과일을 직거래

로 입점·판매하고 제주농협은 ‘빛찬들 햅쌀’의 적극적인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광주본부 관계자는 “쌀 소비촉진 운동과 함께 지역 쌀 판로 확대,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쌀 수급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담양 청소년지도위원회, 학교폭력 예방교육



담양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서생현)와 담양경찰서(서장 양수근)는 최근 담양읍 남초등학교에서 디지털성범죄 및 사이버도박 예방법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행사에서는 교내 학교폭력·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도박을 예방해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교육이 실시됐다. 담양경찰서 이슬 학교전담경찰관이 청소년에게 취약한 스마트폰 범죄 유형과 피해 시 대처 방법에 대하여 교육했다.

서생현 회장은 “앞으로도 법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준법 의식 향상과 안전을 위해 보호·선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

### 2025 용봉인 영예대상에 김용기·김철수 동문 선정



전남대총동창회(회장 류혜경)는 지난 26일 제29회 ‘2025 용봉인 영예대상’에 김용기(왼쪽)·김철수(오른쪽)를 졸업하고 경희대, 한양대, 한림대, 가톨릭대 의과대학 외과교수를 맡으며 의료 발전에 힘썼다. 전극중소병원협회 회장, 한국병원협동조합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회장,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 등을 맡아 국가 사회발전에 공헌해 왔으며 2023년 8월 제30대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해 적십자 박애정신 실천에 앞장서왔다.

시상은 6월 5일 오후 5시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개교 73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정했다.

김용기 동문은 1974년 전남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세아상역사를 설립해 세계 1위 의류제조수출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후 인디에프, 태림, 상용건설, 전주페이퍼, 테그라, S&A, S2A를 잇달아 인수하거나 설립해 섬유·패션, 건설, 제지·포장, 문화 등 그룹의 4대 핵심사업을 구축했고, 자본금 5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지난해 매출 5조 규모의 글로벌세아 그룹으로 발돋움시키는 등 국가경제발전에도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외교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 약물 예방 협약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27일 전남지역 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미약퇴치운동본부 전남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과 건전한 성장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

청소년미래재단 등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 청소년 대상 약물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운영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상담·치료 지원 연계 ▲약물 관련 정보 및 자료 공유 ▲예방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내 딸 서영이’ 배우 최정우 별세



‘주군의 태양’과 ‘육사부인전’ 등 여러 드라마에서 중후한 역할로 시청자에게 인상을 남긴 배우 최정우(사진)가 27일 별세했다. 향년 68세.

소속사 블레스이엔티 관계자는 이날 “최정우 배우가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고인은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드라마 ‘주군의 태양’, ‘잔란한 유산’, ‘내 딸 서영이’, ‘육사부인전’, 영화 ‘투깝스’ 등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5 KBS 뉴스	30 여왕의 집(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한글용사 아이야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	10 바다 건너 사랑 3(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24시 헬스클럽(재)	15 찾아가는 푸리교실(재) 45 꼬마캐리 탐구생활	00 보물지도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오늘N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안방 자두야 6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05 터닝메카드 갖(재) 25 키즈 펫 도감(재) 55 2시 뉴스 외전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2025 단오장사 씨름대회 <한라장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24 45 쏠! 내 친구는 빅파이브(재)	55 기본 좋은 날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영상앨범 산(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최선규의 이제는 지방시대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00 Why? 15 다이노 파워즈 4 30 골짜기 영화가 좋다	10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4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 집 금슬아지	50 여왕의 집	05 친절한 전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20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 <더불어민주당> 30 대운을 잡아라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수목드라마 24시 헬스클럽	00 슈팅스타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30 라디오스타	40 사계의 봄
11	30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 -국민의힘 40 영상앨범 산(재)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스튜디오 K		
12	00 KBS 중계식 <창작 오페라 이순신>	40 KBS 재난방송센터(재)	15 MBC 뉴스 25 35 웰컴 투 스포츠	0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 <포토제닉 아프리카 -햇살 눈부신 날에, 방개울루>	17:40 도레미 프렌즈 쇼츠
05:30 클래스 e		17:50 사내수공업 가수 -디비드 봉(재)
05:50 한국기행		18:1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8:30 건축탐구 - 집
07:0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2:10 PD로그(재)	19:20 고향만국
07:15 무지개 강아지 달린의 모험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귀하신 몸
07:30 얼마 까투리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맛있는 튀르키예4 -봄을 찾아 동쪽으로>
07:45 레인보우 버블럼	14:30 클래스 e	21:35 한국기행 400회 특집 <눈부시게 아름다운 3부 할매>
08:00 당동맹 당동맹	15:10 고향만국	21:55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08:50 고고다노 해양구조대	15:40 마사와 곰	22:45 박준빈의 세계 기사사당 3
09:05 메탈카드봇 S 경찰의 귀환	15:55 블랙스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20 사내수공업 가수 -디비드 봉	16:10 당동맹 당동맹	24:00 클래스 e(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7:00 페퍼 피그	
10:30 한국기행(재)	17:10 얼마 까투리(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5 레인보우 버블럼(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8일(음 5월 2일 丁酉)** ☎ 010-9790-8237

<p><b>子</b></p> <p>36년생 체면 따지지 말고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낫다. 48년생 때와 장소에 따른 상황 파악에 신경 써야 하리라. 60년생 결과보다 진행 과정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72년생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 전망지치가 낫 것이다. 84년생 금전에 집착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96년생 무의미한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18, 70</p>	<p><b>午</b></p> <p>42년생 여건을 발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54년생 처음으로 대하는 이나 기회와의 인연이 기대된다. 66년생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수궁하게 될 것이다. 78년생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90년생 필요 하다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것도 괜찮다. 02년생 터놓고 논의해야만 수궁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9, 92</p>
<p><b>丑</b></p> <p>37년생 과감한 결단을 내리야 할 때가 되었다. 49년생 굳은 신념으로 추진해야 풍성한 수확을 예상할 수 있다. 61년생 나을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들어갈 곳은 넘쳐나겠다. 73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아예 만들지 마라. 85년생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느니라. 97년생 중요한 기회들이 니 잘 활용해보라. 행운의 숫자 : 13, 51</p>	<p><b>未</b></p> <p>43년생 사정을 헤아려서 무리하지 않게 처리해야겠다. 55년생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의 요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67년생 판도는 자신만을 기다려 주지 않느니라. 79년생 처음에는 어려우나 점점 쉬워질 것이다. 91년생 관리 만 잘 한다면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03년생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3, 78</p>
<p><b>寅</b></p> <p>38년생 결과는 의외로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50년생 상대적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라. 62년생 헤쳐 나갈 수 있는 기상천외한 묘안이 보인다. 74년생 여명이 밀려가는 어두움을 보게 되리라. 86년생 유대 관계가 절실할 필요한 때이다. 98년생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면 편찮을 것이니 불편하더라도 적응해 나가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08, 64</p>	<p><b>申</b></p> <p>44년생 비슷한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56년생 두각을 나타내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이다. 68년생 잠재적인 위상까지 인식하고 언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0년생 과감한 결단을 한다면 행운을 도모할 것임에 틀림없다. 92년생 과격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04년생 새롭게 하는 것이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09, 65</p>
<p><b>卯</b></p> <p>39년생 적덕이 있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51년생 분수와 현태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겠다. 63년생 거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위력이 지대하다. 75년생 표준과 전형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겠다. 87년생 잘 다루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을 안게 된다. 99년생 투명하게 처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행운의 숫자 : 19, 87</p>	<p><b>酉</b></p> <p>46년생 최선을 다 해야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58년생 초심대로라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70년생 무의미한 정황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82년생 당면 과제에 집중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와 있다. 94년생 일도당할 수 있는 처신이 필요하다. 06년생 머지않아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5, 74</p>
<p><b>辰</b></p> <p>41년생 흥과 북이 반반이니 의외로 대처하라. 53년생 이미 완전히 결정된 판국이니 전혀 여지를 두지 마라. 65년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간발의 차이로 행운을 잡게 된다. 77년생 상대의 의사를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89년생 생인이 파악된다면 지체 없이 처리하라. 01년생 노파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2, 97</p>	<p><b>戌</b></p> <p>47년생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만 오픈하지 않는다. 59년생 포기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71년생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엄청난 해를 입게 된다. 83년생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될 것이다. 95년생 실제의 현장 감각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 07년생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1, 57</p>